

September 2011

Emerging Market Daily*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크 방문 성과와 전망

September 8, 2011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 성과와 전망

변현섭 (롯데백화점 러시아사업부문 점포개발팀장)¹⁾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Islam Abduganievich Karimo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본 회동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상호신뢰와 우의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또한 41억 달러 규모의 수르길 (Surgil) 프로젝트를 체결하는 등 실제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수르길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아랄해(Aral Sea) 인근 가스전을 개발·생산하고 가스·화학플랜트의 건설 및 운영까지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사업비는 가스전 개발에 5억 달러, 석유화학설비 24억 달러 등 모두 41억6천만 달러(약 4조 5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르길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은 1,300억m³(액화천연가스 환산시 9,600만톤, 원유 환산시 8억 3,000만 배럴)로 추산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3~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가스에는 4.8%의 에탄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0억m³ 천연가스를 가공하여 40만톤의 폴리에틸렌과 10만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우즈코르(Uzkor) Gas Chemical'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지분은 국내 기업의 컨소시엄(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참여)으로 구성된 수르길 합작사와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UNG)가 50%씩 보유해 수익도 절반으로 나누는 구조이다.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와 컨소시엄은 금년 하반기 중 금융협약서 체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완료하고 2012년 초 가스·화학플랜트를 착공하여 2015년 상업생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2040년까지 25년간 운영하게 된다.

1) 롯데백화점 러시아사업부문 점포개발팀장 변현섭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러시아 지역학 석사와 모스크바 국립경영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음. 롯데경제연구소 해외경제팀 수석연구원과 롯데백화점 해외사업부 기획팀을 거쳐 현재 모스크바에서 근무하고 있음.

수르길 프로젝트 체결의 의미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3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0년 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협정에 서명해 본격화되었으며 추진 5년 반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수르길 프로젝트가 천연자원을 원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산업 육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스전 개발과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이 결합된 한-우즈베키스탄간 대표적 협력사업으로 사업 성공 시 자원과 산업기술을 결합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수요를 충당한 뒤 석유화학제품을 인접 국가에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산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수르길 사업이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전역을 통틀어서도 유일한 대규모 사업”이라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와 정치적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이투뉴스 홈페이지

20여건의 다양한 양국 간 MOU와 계약 체결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최로 8월 24일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우즈베키스탄 섬유기술 협력 연장 MOU’, ‘한-우즈베키스탄 희유금속 공동탐사 MOU’ 등 총 7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특히, 희유금속 MOU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중부의 롤라불락-바얀카라(Lolabulak- Bayankara) 지역의 희유금속 유망광산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 증권 시장 현대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IT 기술 수출 계약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체결로 거래소는 우즈베키스탄 증시에 필요한 IT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즈베키스탄 거래소 지분을 취득, 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 증시 현대화 사업을 수주할 경우 동남아 지역 위주로 추진되던 증시 인프라 수출 사업을 중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 대외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총 1,05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4개 무상원조 사업 시행 MOU를 체결하였다. KOICA는 우즈베키스탄을 중점협력국으로 정하고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4,39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국별지원전략(CPS)을 통해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전망

양국 경제의 잠재력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을 확대시킬 여지는 매우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교역량이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0년 양국간 교역량은 14억 6,000만 달러였으며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교역량은 7억 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6%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수출이 6억 9,900만 달러로 전년(5억 200만 달러) 동기대비 39.2% 증가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8,100만 달러로 전년(6,910만 달러) 동기대비 17.2% 증가하였다.

수출입 등 교역 뿐만 아니라 투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 매우 높다. 우즈베키스탄은 석유가스, 화학, 광산채굴, 기계제작, 전기전자, 의약, 경공업, 건설자재생산, 에너지 절감 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다. 또한 나보이 자유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국측의 투자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이며 이 중 직접투자규모는 20억 달러이다.

이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 범위가 에너지·자원뿐 아니라 기반시설 구축, 정보기술(IT), 보건의료와 섬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각 분야에서 추진중인 협력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 하기로 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문화 및 인적 교류를 확대키로 했으며, 각 분야에서 추진중인 협력 사업들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가자고 합의하였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언론들은 수르길 프로젝트에 41억 달러 투자,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내용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양국 정상
의 중요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 및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참고자료 〉

<http://www.regnum.ru/news/fd-abroad/uzbek/1438776.html>
<http://www.regnum.ru/news/fd-abroad/uzbek/1437888.html>
<http://www.regnum.ru/news/fd-abroad/uzbek/1438398.html>
<http://ru.trend.az/regions/casia/uzbekistan/1922148.html>
<http://www.ca-news.org/news/765461?from=ya>
<http://www.rbc.ru/rbcfreenews.shtml?/20110824111447.shtml>
<http://neftegaz.ru/news/view/99859>
<http://www.profi-forex.org/news/entry1008085633.html>
<http://energo-news.ru/archives/72279>
<http://www.uza.uz/ru/politics/16056>
<http://www.rosbalt.ru/business/2011/08/24/882524.html>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7237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48811>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96>